

국민 절반 넘게 여름휴가 간다

하계휴가 실태조사 55.2%... '구체적인 여행 계획이 있다'
여행 휴가비 지난해보다 3000원 늘어난 평균 25만9000원

올해 국민의 55.2%가 여름휴가를 떠날 계획인 가운데 그중 82.6%가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내 여행 휴가비용은 지난해보다 3000원 늘어난 평균 25만9000원을 지출할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과 함께 국민 여름휴가 여행 계획을 파악하는 '2018년 하계휴가 실태조사'를 국민 1105명을 대상으로 8~22일 전화 조사(한국리서치, 조사 표본 오차: 95%·신뢰 수준 ±2.95%)로 진행했다.

이번 여름휴가 여행을 계획한 응답자 비율 55.2%는 '구체적인 여행 계획이 있는 응답자'(27.3%), '휴가 여행을 다녀올 가능성이 큰 응답자'(26.5%), '이미 휴가를 다녀온 응답자'(1.4%) 등 비율의 합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52.1%)와 비교할 때 3.1%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휴가 계획이 없는 국민은 이유로 업무·수업·가사 등으로 인한 '여가 시간과 마음의 여유 부족'(76.1%), '건강상 이유'(15.3%), '여행 비용 부족'(12.1%), '볼봐야 할 가족'(5.2%) 등을 꼽았다.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응답자의 휴가 목적지는 국내 82.6%, 해외 12.2%로 나타났다. 국내 여행을 계획한 응답자의 방문 목적지는 '강원도'(32.1%)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상남도'(12.7%), '경상북도'(10.4%), '전라남도'(9.9%), '경기도'(9.3%) 순으로 조사됐다.

출발 시기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7월16일~8월12일) 사이에 85.5%가 집중했다. 일차별로는 '7월28일'이 20.3%로 가장 높았다. '7월27일'(8.0%), '8월3일'(7.7%), '8월2일'(6.8%) 순으로 나타났다. 7월 말에서 8월 초 여름휴가 여행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응답자의 예상 지출액은 평균 25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30.5%→29.8%),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30.3%→19.5%) 등 지출 예정자가 감소했으나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8.6%→12.8%), '100만 원 이상'(1.3%→2.4%) 등 지출 예정자가 늘어나 평균 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0만원 미만(0.4%→2.6%)과 10만원 이상~20

만원 미만(29.0%→32.9%) 지출 예정자도 증가해 국내여행 영역이 '고급(럭셔리) 여행'과 가성비비를 중시하는 '알뜰 여행' 모두로 확장하는 것을 보여준다.

여름휴가 기간은 '2박3일'(40.9%)이 가장 많았다. '1박2일'(28.9%), '3박4일'(18.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보다 2박3일은 3.1% 포인트 감소(44.0%→40.9%)했으나 3박 4일은 2.7% 포인트(15.8%→18.5%) 증가했다. 평균 휴가 기간도 2.9일에서 3.1일로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여름휴가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로 여름휴가를 떠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78.0%)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비행기'(8.6%), '철도'(4.7%), '고속·시외버스'(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은 '펜션'(37.5%)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가족·친지 집'(17.7%), '콘도/미니엄'(12.0%) 순으로 조사됐다.

문화부 정책 담당자는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을 지낼 힘을 얻는 시간"이라며 "우리나라 구석구석이 푸르게 펼쳐지는 여름, 국민들이 가까운 국내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

레진코믹스 '10만명에 100만 보너스코인'

지난5년간 '역대 1위 만화... 1코인 이벤트'
코인충전시 금액에 따라 최대 100코인 추가
이벤트기간은 내달 4일 정오까지 일주일간

레진엔터테인먼트는 내달 4일까지 레진코믹스 고액 대상으로 레진코믹스 5주년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레진은 사은행사 기간 동안 유료 에피소드를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00코인(1명), 500코인(100명), 20코인(3만명), 10코인(7만명) 등 총 10만101명에게 135만5000 보너스코인을 지급하는 '10만명에 100만 코인을 드립니다!' 이벤트를 진행한다.

보너스코인은 7월 11일 '내 선물함'으로 일괄 지급되며, 보너스코인 등록기한은 7월 31일,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5주년을 기념해 기간 이용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은 작품들로 구성된 '역대 1위 만화, 1코인 이벤트'도 열린다. 지난 5년간 레진코믹스 전연령과 성인 TOP 100에서 가장 많이 1위를 기록한 작품기준으로 각 5편씩 총 10편이다.

대상작은 레진코믹스 대표 성인만화인

이원식·박형준 작가의 '몸에 좋은 남자'(685일 1위), 레진코믹스 대표 캠퍼스로 맨스블인 이연지 작가의 '우리사이에는'(573일 1위), 성인로맨스의 새로운 지평을 연 네온비 작가의 '나쁜 상사'(485일 1위), 일상캐그들의 대표작인 레바 작가의 '레바툰'(284일 1위)' 등이다.

레진은 이벤트 기간 동안 코인충전 시 충전금액에 따라 최대 100코인을 추가 지급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레진코믹스 5주년 감사 이벤트'는 이날 정오부터 7월 4일 정오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안준용 레진엔터테인먼트 마케팅그룹장은 "레진코믹스 5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은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으로 이용자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자리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

연지아트홀 기획공연 '하우스콘서트' 오픈

11월까지 지역예술단체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공연 선보여

정음 연지아트홀이 기획공연으로 마련한 '하우스 콘서트'가 27일부터 11월까지 매일 열린다.

정음시는 시민들에게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볼거리가 있는 흥겨운 하우스콘서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예술단체들이 참여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공연은 연지아트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첫 공연은 27일 저녁 7시에 열렸다. BLUE 밴드와 정음 최초의 여성밴드인 '십릉'이 화

려한 공연이 선보였다.

이어 7월 21일에는 해금을 위한 수제천과 선율, 27일 김소희 발라댄스코리아, 8월 23일 로만체 피아노양상블, 9월 20일 시립농악단, 10월 16일 시립합창단, 11월 22일 정음 하울링 우쿨렐레팀이 차례로 공연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수준 높은 초청 공연과 지역예술단체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지아트홀을 거점으로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음=김대환 기자



정음시립국악단 상설공연 '달님에게 소원을 말해 봐'

오늘 오후 7시30분, 정음시예술회관에서 흥겨운 국악공연 선보여

정음시립국악단의 6월 보름 상설 공연 '달님에게 소원을 말해 봐'가 28일 밤 7시 30분에 정음시예술회관에서 공연된다.(당초 정음시공원이었으나 우천 예보로 장소 변경)

공연에서는 웃음과 스토리가 있는 단막창극 '십릉사가 사랑했던 땃과'와 역동적인 타악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정음 출신의 젊

은 국악인인 장운정, 최유정, 이수민씨가 출연해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를 가요급 3중주로 들려준다.

뿐만 아니라 정음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블루밴드가 출연, 흥겨운 연주로 보름밤의 흥취를 한껏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관람

/정음=김대환 기자

할 수 있는 작품으로 준비했다"며 "가족, 친구와 함께 흥겹고 신명나는 국악선율을 즐기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립국악단은 국악 저변 인구 확대를 통한 국악 바련과 정음을 대표하는 공연문화 조성을 목표로 2016년부터 국악단 상설공연을 마련해오고 있다. 관련해 5월부터 10월까지 매일 보름밤에 국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을 초청, 볼거리 있는 공연을 펼쳐오고 있다.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 고창농악 인문학 콘서트

'전라도의 소고' 고창농악전수관 대극장서 오늘 오후 8시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농악의 약기를 돌아보는 '고창농악 인문학 콘서트-전라도의 소고'가 28일 오후 8시 고창농악전수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고창농악 인문학 콘서트의 주제인 전라도의 소고는 크게 전라도농악의 고깔소고춤과 전라좌도농악의 채상소고춤으로 나뉠 수 있다.

은근하고 흐드러진 춤으로 풍물판의 꽃을 이루는 고깔소고춤과 힘차고 강한 느낌으로 표현되는 채상소고춤의 매력을 이번 콘서트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고창농악 인문학 콘서트는 우도지역의 고창고깔소고춤과 황제기류 고깔소고춤의 이야기를 김영희 전통춤 이론가의 강연과, 전라도 좌도 지역의 흥유봉류 채상소고춤과 채상소고 이야기를 조세훈 남원농악 이수자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임성준, 문현주, 하애정, 조세훈 씨의

소고춤 전승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고창농악보존회 이명훈 회장은 "옛부터 민초들의 삶과 함께했던 소고가 들려주는 소박하면서도 풍성한 이야기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으니, 전라도 소고의 멋과 맛을 한껏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서로 힘을 합쳐 다양한 콘텐츠를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는 (사)고창농악보존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재청과 고창군이 후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고창농악 큰 잔치를 시작으로 하여 28일과 오는 10월 25일은 '전라도의 소고'와 '전라도의 팽과리'를 주제로 고창농악 인문학 콘서트가 펼쳐지고 다음달 28일은 아시아 민속춤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